



드론앵커센터 조감도

드론기업과 함께 ‘고양드론앵커센터’

2022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고양드론앵커센터(Goyang Drone Anchor Center)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화전지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며 현재 화전역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24㎡ 규모로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기 북부 최대 ‘드론밸리’로 성장해나갈 고양드론앵커센터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자.

글. 명정현(고양시 전략산업과 주무관)

미래 드론산업을 위한 초석

드론기업들은 드론 연구개발을 위해 테스트 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필요로 하는데,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실내드론비행장을 비롯한 드론R&D센터와 입주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할 드론기업들에는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대덕생태공원 내 ‘고양대덕드론비행장’도 함께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보다 좋은 비행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다양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드론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관계 기관, 대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넓힘으로써 드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고양드론앵커센터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드론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드론’이란 말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된 요즘, 우리는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 방송·영화에 사용되는 항공촬영, 음식 배달 서비스, 드론택배와 안전진단 등 각종 산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생활 속에서 드론의 영향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는 ‘드론택시’까지 상용화될 것이라 하니 그 활용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드론 비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계 체계가 필요하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고양시 드론 관제 시스템(일명 ‘GO-UTM’)을 구축하여 고양시 내에서 운용되는 드론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GO-UTM과 연계한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드론의 비행량이 늘어날수록 안전사고를 정확하게 통제·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GO-UTM은 이러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앵커센터 조감도



일상 속 드론문화 구축에 앞장설 것

2021년 3월부터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가 됐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이러한 드론 자격증 분야 교육을 관내 비행교육원과 협업하여 진행할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드론 제작·조종·체험·코딩·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드론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감소하는 것에 반해 최대 5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되는 드론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앵커센터에서는 전국 드론축구 동호회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양드론축구 리그제를 운영하고 축구 뿐만 아니라 농구·배구·낚시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함께 실현해나갈 드론산업의 청사진

고양드론앵커센터는 고양대덕드론비행장과 더불어 드론산업을 고양시의 자족산업으로 성장시킬 요망지가 될 전망이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이용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함께 고양시의 드론산업을 육성하여 화전지역이 경기 북부 최대의 드론밸리로 성장하는 것을 꿈꾼다. 앵커센터를 허브로 그 주변 지역이 드론 관련 기업들로 채워지면 드론산업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고양시가 가진 드론산업의 청사진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고양시의 자족산업과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